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
성장기록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
성장기록

목 차

1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서울 마포구	7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 춘천시	17
자오나학교 서울 성북구	27
행복한청소년 서울 중랑구	37
세상을 품은 아이들 경기 부천시	47
동넙지역아동센터 경기 고양시	57

2기

우리들의 눈 서울 종로구	69
사랑의 힘(꿈이룸학교) 서울 영등포구	79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영등포구	93



1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서울 마포구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 춘천시

자오나학교
서울 성북구

행복한청소년
서울 종랑구

세상을 품은 아이들
경기 부천시

동넉지역아동센터
경기 고양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죄 없이 사회적 낙인과 보호 상실에 갇힌 수용자 자녀와 그 가족을 대상
- 통합적 지원 플랫폼 구축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네트워크(법무부-개별교도소-세움) 모델을 통한 맞춤형 개별지원 제공

설립연도 2015년

대표자 이경림 상임이사

연간예산 5.8억 원

직원수 5명

주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8-12

연락처 02-6929-0936

웹사이트 www.iseum.or.kr

수용자 자녀와 가족이 당당하게 사는 세상

글 김혜진

어느 날, 연우(가명)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한데, 가진 돈은 없고 도저히 그만한 돈을 구할 수가 없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 한 연우 아빠는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됐다. 아빠와 단둘이 살던 연우는 이웃 아저씨한테 맡겨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우는 임시보호자였던 그 이웃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대표가 빈곤 아동 지원 단체에 몸담고 있을 때 만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의 이야기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회적 지지망이 약하다. 즉, 의지할 존재가 거의 없다. 연우네는 빈곤으로 인해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고, 그로 인해 그 자녀가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된 경우다. 연우 일을 계기로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수용자 자녀가 있고, 그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빈곤 아동 지원 단체의 상임이사 임기를 마친 이듬해, 수용자 자녀와 가족이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전문기관,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을 설립한다. 그때가 2015년이였다.

파트너십 온과의 만남은 ‘운명’

이경림 대표는 2015년 3월 30일, 서울시로부터 법인 허가를 받은 그 날을 잊지 못한다.

“법인 허가를 받은 바로 그 날,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공모가 뒀어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비영리단체’를 지원한다고 해요. 바로 우리잖아요. 이걸 완전히 세움을 위해 만들어진 공모구나. 운명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었어요.”

1차 투자신청서를 우선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사업명은 ‘수용자 청소년 자녀 역량강화 지원 사업’. 1·2차 서류심사, 3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4차 현장실사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2015년 6월, 세움은 국내 최초로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한다는 그 혁신성을 인정받아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의 1기 혁신리더 일곱 기관 중 하나로 최종 선발되었다.

수용자 자녀 및 가족들을 만나다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우선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날까? 인터넷에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수용자’, ‘수용자 자녀’, ‘교도소’로 검색을 하니, 세 개 정도의 교도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수용자 가정에 김치나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정보가 나왔다. 그 교도소들에 전화를 해, 수용자 가정을 추천해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군데는 거절, 그러나 한 교정기관의 교도관이 “정말 필요한 일을 하십니다”라며 열 가정을 추천해주었다. 소개받은 열 가정 중 아홉이 가정방문을 허락했다. 그렇게 수용자 가족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법무부로 찾아가 세움을 소개하고 전국 교도소에 공문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흔쾌히 수락했고 전국 53개 교도소에 공문을 보내 각 교도소에서 5명 내외의 수용자를 추천받았다. 총 200가정을 소개받았지만, 그중 조부모 양육가정, 조부모의 질병 유무, 다자녀 가정, 여성수용자 가정 등 우선순위를 정해 50가정을 추렸다. 한 가정씩 방문해 수용자 가족을 만나갔다. 미리 교도소의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세움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최선희 운영팀장에 따르면, 수용자 가족이라는 비밀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었던 그들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이춘식(가명) 할아버지도 그랬다.

“아들이 교도소에 가고 투명인간으로 살았어. 평생 산 곳을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이사 왔고, 손자들을 데리고 살고 있어. 그런데 이런 내 얘기를 어디에 할 수 있겠어? 세움이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를 다시 찾는 느낌이 들어.”

세움은 수용자 가족, 즉 수용자 자녀와 현재 그들을 돌보는 양육자의 비밀친구가 되면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직한 어깨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수용자 자녀들에게 매달 용돈 명목으로 세움 장학금을 5~7만 원씩 주고, 주거나 의료, 관리비 등 가정에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땐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교통비나 보호자가 없어 면회를 가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그들과 함께 교도소에 다녀오는 등 각 가정에 맞는 개별지원을 해나갔다.

인식개선을 위한 세움의 노력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 원칙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수용자 자녀 역시 부모의 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한 아동으로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러나 세움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기관이었다.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선 세움보다 앞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국제단체와 힘을 모아야 했다. 또한 그들의 실천적 경험들을 배워 한국에 맞게 적용한다면,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었다.

세움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아야 한다(Not my Crime, Still my Sentence)'는 수용자 자녀권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COPE(Children of Prisoners, 수용자 자녀 지원 유럽연합회)', 뉴질랜드의 'INCCIP(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수용자 자녀지원 국제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일본의 수용자·가해자 가족 지원 비영리단체 '월드오픈하트(World Open Heart, WOH)'와 2015년부터 매년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해 서로의 사례와 연구를 공유해나갔다.

국제협력을 도모하면서, 2016년부터는 거리로 나가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해자 가족이 있었어요?"라는 놀라움을 표하는 이도, "부모의 죄는 당연히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이도 있었다. 그럴 때면,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거리 캠페인 직후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이경림 대표는 늘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이건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야. 일단 우리의 과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볼 수 없는 사람이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만약 우리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는 힘을 모아 함께 가는 거고."

아동친화적인 가족접견실을 만들다

2017년 초, 세움은 한 여성 수용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멀리 지방에서 수도권의 구치소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면회를 와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편지였다.

엄마가 구치소에 들어간 뒤, 위탁모에게 맡겨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남매. 남매는 15개월 만에 엄마를 만났다. 그동안의 그리움이 북받쳐 가족접견이 이루어진 1시간 반 동안 내내 울어 통통 눈이 부어 나왔지만, 엄마를 만나고 나온 아이들은 전보다 한층 밝아져 있었다.

최윤주 사업팀장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부모와 이별한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수용자여도 마찬가지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비밀로 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와의 접촉을 단절하면 아이는 '나 때문에 부모님이 떠난 건가?'라면서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주저한다. 교도소의 삭막하고 경직된 분위기, 수의를 입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과연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될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파트너십 온 사업 3년 차인 2017년에 세움은 새로운 시도를 했다. 법무부에 아동친화적인 가족접견실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며 그 필요성에 동감했고, 여주교도소의 가족접견실을 리모델링하도록 내어주었다. 무겁고 탁했던 가족접견실은 2주 만에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얼마 뒤, 여주교도소의 교도관은 리모델링된 가족접견실에서 흘러나오는, 오랫동안 교정시설에 근무했지만 그 안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청량한 노랫소리였다.

그 후 세움은 가족접견실 리모델링 매뉴얼을 만들어 법무부에 제공했고, 법무부는 그를 토대로 2017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6개소의 가족접견실을 아동친화적으로 리모델링했다. 법무부는 또한 가족접견을 할 땐 수형자복이 아닌 사복을 입으라는 지침을 모든 교도소에 내렸다. 이 역시 세움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바였다.

국내 최초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세움은 파트너십 온 사업에 선정된 뒤, 매달 한 번씩 아산나눔재단의 투자자, 자문위원과 함께 자문회의를 통해 그때그때의 주요사항을 논의해가면서 사업을 진행시켰다. 줄곧 아산나눔재단은

정량적인 성과와 함께 정성적인 성과도 강조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만큼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느냐’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한 아산나눔재단의 사업평가 기준은 세움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세움은 2016년에 ‘이 땅에서 수용자 자녀로 산다는 것은’, 2017년에 ‘수용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비난과 생존 사이에서’연구 논문을 각각 교정담론과 한국사회복지학회에 발표했다.

2017년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해였다. 한 일간지에 실린 세움의 활동 기사를 통해 수용자 자녀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세움에 의뢰한 것이다. 국내 최초로 이루어지는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였다. 세움은 그간 관계를 돈독히 다져온 법무부의 협조로 6월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수용자 5만 7천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수용자의 미성년자녀가 5만 4천명이라는 수치를 얻었다. 대한민국에 전무했던 수용자 자녀에 대한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되는 순간이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2년 6개월간의 파트너십 온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경림 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우리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없어요. 다 사회의 것이고, 우리의 경험을 100% 오픈하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수용자 자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 내년까지는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문위원 박경수(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세움이 아동친화적인 가족접견실 등 교도소의 면회 환경을 바꾸고, 국내 최초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쪽 분야에서 새로운 대표성을 갖게 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세움의 이런 활동이 지속되면, 수용자 자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변화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세움의 3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전했다.

세움은 수용자의 죄명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고 했다. 오로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수용자 자녀를 바라보고, 다가가고, 지원했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을 때, 그들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가족중심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힌 수용자 가족에게 어떤 잣대도 들이대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도운 건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은 일이었다. 그간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세상에 알린 일이 세움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세움은 수용자 가족과 자녀들에게 비밀친구가 되어주고, 기댈 어깨가 되어 주었다. 이제 세상에 당당히 바로 선 이들은 앞으로 세움의 큰 자원이 될 것이다.

해솔직업사관학교

- 대한민국에 입국한 10대에서 20대까지의 북한이탈청소년 중 미취학, 미취업으로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대상
- 기계·기술, 서비스, 경제·경영의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로 및 취업 교육

설립연도	2013년
대표자	김영우 이사장
연간예산	4.5억 원
직원수	10명
주소	강원 춘천시 석사동 114-12
연락처	033-263-2878
웹사이트	www.haesolschool.org

정착에 필요한 건 대학 졸업장이 아닌 ‘일자리’

글 최윤아

올해 스물다섯이 된 최민상(가명) 씨는 한국에 온 지 어언 8년째다. 먼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북한을 탈출하기만 하면 평탄한 삶이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때부터 최 씨는 전학과 퇴학, 유학을 반복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일반중학교에 입학했다. 친구들에게는 나이를 속였다. 당시 그의 키는 159cm. 중학교 1학년의 키로 손색이 없었다. ‘중국에서 살다 왔다’고 했더니 친구도 제법 사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사정이 달랐다. 수업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 원체 기초학력이 부실한 데다 다른 또래처럼 학원에 다닐 형편도 안 되는 최 씨가 진도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했다. 학교를 밥 먹듯 빠지던 최 씨는 결국 자퇴했다.

한 탈북자 대안학교에 입학한 최 씨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붙었다. “특례입학 전형 덕에 붙는 건 쉬웠어요.” 입학 이후가 문제였다. 수업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최 씨는 또 한 번 자퇴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갔다. “한국에서 저는 그냥 낙오자였어요. 한국에서 살기 정말 싫었어요.”

1년 동안 중국에서 어학원을 다니던 최 씨는 학비가 떨어지자 다시 한국에 왔다. 그러던 중 일단 참석만 하면 20만 원을 준다는 한 지자체 행사에 갔다가 '해솔직업사관학교'에 대해 듣게 됐다. 옆자리에 앉은 한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기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다 해솔로 간대.”

2016년 12월 최 씨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해솔직업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그는 국어·영어·수학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사·컴퓨터 자격증을 땀다. 요즘은 측량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다. 오전 8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자습하고 수업 듣는 강행군이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다고 최 씨는 말했다.

“이 학교는 좀 달라요. 자퇴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가면 또 원점’이라고 선생님이 뜯어말려요.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업을 찾아줘요. 만약 제게 동생이 있다면 처음부터 여기로 보낼 거예요.”

‘고난의 행군’ 보고 탈북민 교육사업 결심

해솔직업사관학교는 김영우 이사장이 강원도 춘천시에 세운 탈북민 직업교육 대안학교다. 10대 부터 20대까지 남성 탈북민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기술을 가르친다.

외환은행 부행장까지 지냈던 금융맨 김 이사장이 탈북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 1997년, 한국형 경수로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북한 함경남도 신포 외환은행 지점의 초대 지점장을 맡으면서부터다. 2년간 북한에 머무르며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북한의 대기근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는 2003년 외환은행에서 퇴직하자마자 탈북민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0년도부터 탈북민이 물밀 듯이 들어왔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들을 잘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대안학교가 생겼는데 교육의 완성도가 낮았죠. 특례입학전형이 있으니 대학은 곧 잘 보냈지만, 애들이 워낙 기초가 부실하니까 대학을 가면 다 중도 탈락하더라고요. 이걸

아니다 싶었어요.”

10년간 탈북민 대안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거치며 전문성을 쌓은 김 이사장은 지난 2013년 강원도의 요청으로 해솔직업사관학교를 준비해 2014년 1월 개교했다. 그러나 막상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재원을 마련하러 김 이사장 혼자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이사장은 “운영비가 없어서 학교는 문을 닫고 기숙사만 운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때 아산나눔재단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십 온’에 지원했다. 1년 차에 조직을 정비 하고, 2년 차에 해솔만의 독자적인 교육모델을 만들며, 3년 차에 학교를 신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해솔은 1·2차 서류 전형, 3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4차 현장 실사를 통과하고 ‘파트너십 온’ 사업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자문위원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학 진학에 방점을 찍는 다른 탈북 대안학교와 달리 오직 ‘기술’을 가르쳐 남한 사회에 정착 시키겠다는 철학이 혁신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직력·전문성 강화와 해솔교육모델 추진

그때부터 아산나눔재단과 해솔직업사관학교의 동행이 시작됐다. 아산나눔재단 측 매니저, 자문위원 최혜지 교수와 함께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가장 먼저 업무 분장을 들여다봤다. 최 교수는 “김영우 이사장 혼자 너무 많은 일을 관장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업무가 나뉘어 있지 않아 책임감과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했다. 최상준 부장은 “당시 직원 세 명이 홈페이지 관리, 교육과정 구성, 기숙사 관리에 재무·행정까지 닥치는 대로 맡아 했다”며 “이사장이 지시하면 우연히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업무 담당자가 될 정도로 업무 처리 방식이 서툴렀다”고 말했다.

학교가 커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직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행정·홍보 전담 인력을 채용했다. 행정 인력은 세부 업무 분장과 졸업생 사후관리 매뉴얼을 제작했고, 홍보 인력은 만화 형식의 학교 소개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최소한의 조직력을 갖춘 학교는 2년 차 목표인 '해솔교육모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탈북민의 '진학'에 주력하는 다른 대안학교와 기술 교육을 통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해솔의 교육과정은 달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제는 전문성이었다. 금융인 출신 이사장이나 목회자·사회복지 전공자로 구성된 직원 모두 교육과정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전무했다. 최 교수는 춘천에 연고가 있는 교육 전문가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은퇴 교사 6명을 영입해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조언을 받고자 한 것이다. 최 교수와 김영우 이사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자 춘천교대 전 총장, 교육장 등 내로라하는 교육 전문가 군단이 완성됐다. 이들과 머리를 맞댄 해솔은 '기초 교육-기술 교육-취업 교육'이라는 3단계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국영수 기초 교육은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고, 기술 교육은 춘천 폴리텍 대학처럼 전문성을 갖춘 인근 대학에서 교육받도록 했다. 학생마다 진로가 다르고, 학교가 마련할 수 있는 설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기관을 연계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만 하기로 한 것이다.

목표가 생기자 이탈이 줄었다

2년 차가 되자 서서히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성과는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폭력 성향을 보이거나 심한 우울증을 앓던 아이들이 '방향'을 정해주자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원에서부터 '쌈닭'으로 유명했던 김수철(가명) 씨는 개교 이후 첫 폭행 사건을 일으켰을 만큼

거칠었다. 공놀이를 하다 한 친구와 시비가 붙자 멍살을 잡고 밀쳐 경찰이 출동했을 정도였다. 탈북하다 강제수용소로 보내진 부모를 대신해 야산에서 약초를 캐가며 동생을 돌봤지만, 그마저 세상을 떠나자 약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최 부장은 “처음 본 수철이는 마치 온몸에 가시가 돋은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했다.

그랬던 김 씨가 입학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국농어촌공사 1호 취업생이 됐다. 심지어 탈북민 특별전형도 아니라, 일반 전형이었다. 한국 청년들과 대등하게 겨뤄 이뤄낸 성과라는 얘기가. 비결은 '진로'였다.

“수철이와 함께 진로를 탐색하다가 북한에서 상을 탈 정도로 수학을 잘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수학에 소질이 있으니 전기 쪽으로 밀어주면 어떨까 생각했고, 춘천 폴리텍 대학교 전기 기능사 과정을 추천했죠. 대학에서 조교를 하면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더니 그 후로는 알아서 책을 사보고 정보를 가져오더라고요. 삶을 스스로 계획하는 능력이 회복된 거죠.”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된 이주성(가명) 씨도 '진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부모님을 여의고 누나와 살던 이 씨는 여덟 살 때 중국의 한 교회에 버려진 기억 탓에 자살시도를 다섯 차례나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기계 가공 업체에 취업했지만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런 이 씨의 사연이 이 학교 기숙사 사감의 귀에 들어갔다. 사감의 추천으로 2016년 4월 학교에 입학한 이 씨는 '시설 관리자'를 목표로 삼았다. 월급이 적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의 말을 듣고 학교가 진로를 변경해 준 것이다. 방향을 찾은 이 씨는 무섭게 달려들었다. 10개월 안에 공조냉동 기능사와 에너지 관리 기능사를 동시에 취득했다. 이 씨와 함께 폴리텍 대학에서 공부한 50여 명의 학생 중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하다. 이후 대기업 계열사의 시설 관리자로 일하던 이 씨는 더 좋은 자리를 제안 받아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씨는 “자격증을 하나씩 딸 때마다 뿌듯하다”며 “내친김에 산업 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솔을 거쳐 간 70여 명의 학생 가운데 이 씨처럼 전문자격증을 딴 사람은 총 18명이고 취업자는 14명(평균 연봉 2200만 원 / 2018년 7월 기준)에 이른다.

확대된 영향력과 견고한 지지층 형성

아이들이 큰 만큼 해솔도 컸다. 기술 계통 취업을 통해 탈북민을 남한에 정착시키는 해솔의 독자적 교육모델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탈북민 커뮤니티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지난 6월엔 해솔을 벤치마킹한 학교까지 생겼다. 김 이사장은 “교육 과정부터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무 양식까지 모든 자료를 제공했던 ‘아기 해솔’이 서울 강서구에 개교했다”며 “춘천 시장이 당선 직후 이 학교를 찾을 정도로 지역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대통령 표창과 DMZ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재정적으로도 비교적 탄탄해졌다. ‘파트너십 온’에 선정되기 전 학교는 거의 김 이사장의 네트워크에 의존해 재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파트너십 온’과 함께 한 3년 동안 통일부 조례가 개정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매년 1억 20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현재 정기·일시 기부자는 400여 명으로, 3년 전 목표로 했던 기부액 1억원을 달성했다.

학교 신축으로 한 번 더 도약

해솔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학교 신축이다. 현재 해솔직업사관학교는 매달 월세를 내고 있고, 학교 공간이 협소해 기숙사는 별도 건물에 마련한 상태다. 최 부장은 “기숙사가 학교와 1.3km 떨어진 곳에 있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기도 하고, 무엇보다 운동장이 없어 체육 교육을 할 수 없어 아쉬웠다”며 “이미 강원도와 춘천시, ‘파트너십 온’ 지원을 받아 토지를

매입해 학교를 신축 중이고 내년 10월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이사시기에 맞춰 해솔은 여성 탈북민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탈북민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유흥가, 성매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10명을 선발해 간호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술 취업을 통한 사회 정착이라는 철학을 지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자오나학교

- 청소년 양육미혼모 및 학교밖 청소년 대상 교육, 양육, 자립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생활공동체형 대안학교

설립연도 2013년

대표자 정수경 교장

연간예산 5.3억 원

직원수 11명

주소 서울 성북구 정릉동 643-1

연락처 02-911-7580

웹사이트 www.zaona.net

‘어찌다 엄마’에서 ‘당당한 엄마’로

글 최윤아

“우리 가영이가 이래봐도 여기서 만언니예요. 어때요? 의젓하죠?”

지난 6월 26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오나학교’. 알록달록한 유아용 매트가 깔린 거실에서 뚫어져라 TV를 보는 가영(가명)양을 바라보며 김수정(가명)씨가 웃으며 말했다. 단발머리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김 씨는 올해로 열아홉 살. 미용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자 동시에 세 살배기 딸 가영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김 씨가 자오나학교의 문을 두드린 건 지난 2015년 1월. 가영이가 태어난 지 56일째 되던 날이었다. 아기와 함께 지낼 곳이 마땅치 않던 김 씨는 출산하자마자 전국의 미혼모 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 김 씨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 자오나학교였다.

“다른 시설은 워낙 사람이 많아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챙겨야 하고, 사실상 잠만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긴 좀 달랐어요.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아이를 봐주시니 맘 놓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서로 진짜 가족처럼 챙겨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김 씨도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하루는 도덕 수업을 받다가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덩달아 울어 버리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 가영 양 만큼이나 김 씨도 성장했다. 양육에 대해서도 배웠다. 자오나 학교에는 매달 한 번씩 전문 강사가 방문해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연령대별 발달과정, 올바른 훈육법·놀이법을 배운다. 정서적으로도 한 층 안정됐다.

“아기 보느라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친구들이 ‘아기 내가 볼 테니 편하게 밥 먹으라’고 해요. 누군가 내 밥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무척 든든해요.”

작년부터 김 씨는 청약 적금을 붓고 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미용학원에서 헤어 디자이너 교육도 받는다. 꿈을 묻자 김 씨는 이렇게 답했다. “그냥 아기랑 둘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미혼 양육모·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 대안학교

오늘날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삶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천주교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는 고민 끝에 답을 내놓았다.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학교였다.

“청소년 미혼모는 어린 나이에 엄청난 결정을 두 번이나 한 애들이예요. 낙태하지 않았고, 입양 보내지 않았죠. 그렇게 대단한 결정을 한 아이들이지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결국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더라고요. 이런 애들이야말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오나학교 김정수 교감의 설명이다.

자오나학교는 2014년 2월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그해 10월 문을 열고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자오나학교가 미혼모 학교로 낙인찍히는 걸 우려해 모집 대상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했더니 미혼모와 학교 밖 청소년(자퇴하거나 가출한 청소년)이 동시에 문을 두드렸다.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청소년 미혼모라는 '단일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자오나학교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 정부 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이 아이들을 모두 품기로.

그렇게 정부의 지원 없이 살림을 꾸려나가던 자오나학교는 2015년 아산나눔재단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십 온'에 지원서를 냈다. 아산나눔재단은 자오나학교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다른 대안학교와 차별점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첫째는 좁은 공간에서 여럿이 생활하는 일반적인 시설과 달리, 자오나학교에는 모자(母子)가 별도의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됐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청소년 미혼모와 학교 밖 청소년이 한 데 어우러져 생활한다는 점이었다. 자문위원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삶의 히스토리가 다른 두 집단이 함께 살면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진로·양육·자립의 '자오나 교육모델' 확립

개교 반년이 채 안 된 자오나학교에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었다. 교육 목표나 과정 없이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파편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다 보니 교육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문위원 최혜지 교수는 교육의 3대 목표를 진로·양육·자립으로 정하고 커리큘럼을 짰다. 그렇게 탄생한 게 '자오나모델'이다. 입학하면 약 2주 동안 적응 단계를 거친 후 수준별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검정고시를 통과한다. 이후 1년여 동안 본격적으로 자립 준비를 한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각종 자격증을 따거나, 자오나학교가 운영하는 작업장 '엘브로떼'에서 인턴십

기간을 갖는다. 일부 학생은 자오나학교가 마련한 '자오나하우스'에서 독립 훈련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학교는 조직을 정비했다. 최 교수는 "초기 자오나학교는 직원 한 명이 교육, 홍보, 기숙사 관리를 전방위로 마크하는 구조였다"며 "조직을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업무 분장을 짜고, 논의·의결 기구를 만들며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마련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위기를 딛고 탄생한 직업훈련 공간

당초 자오나학교는 1년 차에 교육 모델을 확립하고, 2년 차에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며, 3년 차에 자오나하우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짰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김 교감은 "당초 학생들에게 자립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했지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물품을 떼오며, 재고관리를 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를 우리 역량으로 해나가기 힘들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자오나학교는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다. 베이커리, 케이터링, 카페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때 창업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당초 학교는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카페를 열 생각이었지만, 재개발 예상 지역이어서 배후 수요가 빈약하고 학교와도 멀어 학생들이 출퇴근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학교와 가까운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플라워 카페를 개업했다. 학생 가운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이 꽤 있고, 원예 공예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

엘브로페는 그렇게 탄생한 일종의 직업훈련 공간이다.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사회로 진입하면 시행착오를 겪을까 봐 카페에서 최소한의 직업 교육을 한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지각하지 않고 출근하고,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손님과 대화하며 처음으로 세상과 만난다. 김

교감은 “전에는 학교에 외부인이 와도 인사를 잘 하지 않던 아이들이 카페 매니저에게 직업 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누구보다 밝게 인사한다”고 했다.

자오나하우스에서 ‘독립 여행연습’

어느 정도 조직이 정비되자 학교는 ‘자오나하우스’를 운영했다. 학교에 있는 기숙사와 별도로 인근의 주택을 매입해 학생들이 그곳에서 독립 여행연습을 하도록 한 것이다. 김 교감은 “학교를 졸업하면 스스로 밥해 먹고, 학교나 학원도 다니고, 관리비도 내야 한다”며 “갑자기 혼자 해내야 할 일이 늘어난 상태에서 사회에 내던져지면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할까 봐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나하우스의 경우 월세는 무료이지만, 관리비는 스스로 내야 한다. 워낙 입주를 원하는 학생이 많아 학교는 검정고시 합격 여부, 자격증 취득 여부, 자립훈련 수업 시간 이수 여부와 청약 저축 금액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2명씩 입주자를 선정한다.

1기 입주자 민지(가명)와 선영(가명)이는 자오나하우스를 거쳐 완전한 독립에 성공했다. 열여덟 살에 엄마가 된 민지는 실연을 당한 후 큰 충격에 빠져 밥을 먹지도, 아이에게 먹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오나하우스를 거쳐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스스로 가정을 꾸려가면서 180도 달라졌다. “며칠 전 학교에 놀러 왔는데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던 아이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편식하면 우리 아기도 편식하잖아요’라고 답하더군요.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김 교감의 설명이다. 민지는 현재 대학 미용학과에 다니며 일을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학교를 찾아 미용학과 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정보를 주는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한다. 민지의 룸메이트였던 선영이 역시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따로 독립했다. 현재는 대학 보육교육원에서 공부를 마친 뒤 보육교사 채용을 앞두고 있다.

후원자 저변 넓히고 조직 역량 키워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도 컸다. 아산나눔재단 지원을 받기 전 400여 명이던 자오나학교 후원자는 3년 후 6배에 가까운 2500여 명으로 늘었다.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자체 후원자 모집은 소홀히 하기 쉽지만, 자오나는 오히려 더 열심히 후원자를 모집했다. '파트너십 온'이 종료된 후에도 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커나가기 위해서다.

김 교감은 "강명옥 전 교장 선생님과 아이들이 양조간장, 친환경 수세미를 수백 개 만들어 인근 성당 미사나 바자회에서 팔면서 자오나학교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나눠줬다"며 "이런 활동이 입소문이 나자 가톨릭 방송 등 여러 언론에서 주목했고, 후원자도 차츰 늘었다"고 말했다.

조직 역량도 강화됐다. 대체로 비영리기관 구성원은 헌신성과 열정은 뛰어나지만 회계·마케팅·조직 관리에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데, 그 약점을 컨설팅을 통해 보완했기 때문이다. 자오나학교는 아산나눔재단 측 매니저·자문위원과 매달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됐다는 게 김 교감의 설명이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대략적인 구상만 나열한 사업 계획서를 써냈어요. 그런데 '세부 실행 계획'과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코칭을 받은 후에는 훨씬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어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자오나 담장을 넘어 사회로

당초 자오나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미혼모와 학교 밖 청소년을 함께 교육하기로 한 건 아니었다.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으려고 완곡하게 표현하려다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다. 하지만 이 점이 ‘엄마(미혼모)와 ‘이모(가출 청소년)’ 모두의 ‘학습권’에 도움이 됐다는 게 김 교감의 설명이다.

“학습적인 면에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은 제 또래지만 엄마가 된 친구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요. ‘재는 애 키우면서도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은 거죠. 학습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엄마인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서 양육을 도움 받을 수 있어 공부 할 시간이 생겨요. 윈윈(Win win)이죠.” 이 같은 시너지 덕분에 자오나학교 학생의 고등검정고시 합격률은 100%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해 미용·보육 같은 전문적인 일자리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도 2명 배출됐다.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결국 교육이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확인한 자오나는 청소년 미혼모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 교수와 서울여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미혼모에게 교육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기회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성북구가 한부모 가족지원조례를 개정해 자오나학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서울시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대안교육기관으로도 지정돼 매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됐다. 그 덕분에 ‘파트너십 온’ 사업 종료 후에도 학교를 운영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은 없게 됐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아직 ‘제2의 자오나학교’를 개교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없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단순하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있다.

“시설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을 주고 싶어요. 엄마(청소년 미혼모)나 이모(학교 밖 청소년)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아이들이 상처와 편견, 차별에 굴하지 않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정 엄마 같은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행복한청소년

-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 치유적 개입을 제공하는 대안학교 운영
-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전문가팀의 학교 현장 투입 치료 프로그램 마음샘 운영

설립연도 2014년

대표자 이정국 이사장

연간예산 4억 원

직원수 7명

주소 서울시 중랑구 묵동 239-76 영은빌딩 2층

연락처 02-975-4301

웹사이트 www.happyyouth.or.kr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교실을 만든다

글 김혜진

약몽이 다시 시작됐다. 셋째 하연이(가명)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라”는 담임의 전화를 받았다. 수업 중에 고집을 피우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어 친구들을 때린다고 했다. 같은 반 친구들은 폭력성향을 보이는 하연이를 피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하연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교장실로 찾아가 탄원하기도 했다.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런 일들을 이미 겪어본 하연이 엄마는 불안하고 막막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연이가 달라졌다. 집에 오면 ‘마음쌤’이라는 말을 하면서 밝게 웃었다. 도대체 마음쌤이 뭘까? 아들에게 물으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법을 알려줘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하연이의 폭력성향은 점차 줄었고, 자신을 따돌리던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하연이는 모범상을 받았다. 1년 사이에 문제아가 모범생이 된 것이다. 하연이 엄마는 생각한다.

‘큰 아이 때는 왜 마음쌤이 없었을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우리 큰 애도 졸업할 때까지

문제아로 끌고 가진 않았을 텐데.....'

‘은밀한 학교폭력’ 왕따에 대한 고민

사단법인 행복한청소년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치유적 개입을 통해 그들의 회복과 사회적 적응을 돕고 이를 통해 행복한 교실문화, 올바른 학생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마음샘은 행복한청소년의 주력사업으로,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적 전문가들이 학교현장에 투입되는 ‘학급공동체 형성을 통한 집단따돌림 학급치유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교육부는 매년 두 차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에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 폭행 순으로 학교폭력 피해 유형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음샘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정국 이사장은 “왕따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가 집단에 의해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이는 자기 존재를 거부당하는 것”이라며 “자살하게 되는 심리가 대개 왕따를 당했을 때의 심리랑 비슷하다”고 그 심각성을 경고한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이 이사장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의 경우,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가한 게 별로 없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랑 놀지 않은 것뿐이고, 그 아이가 불려도 대답하지 않은 것뿐이다. 그래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분법적인 학교폭력대책법으로는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신체폭력이 아닌 집단따돌림 등 은밀한 학교폭력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를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의 문제로 보고, 집단 전체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렇게 마련된 게 마음샘(초기 사업명: 왕따특공대)이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

2015년 초, 한 직원이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공모 소식을 알려주었다. 공모 지원을 해본 적 없었지만, 법인을 설립한 지 1년, 조직을 위해서도 마음샘 사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정국 이사장은 직원 두세 명과 함께 1차 투자신청서를 써서 제출했다. 사업명은 “집단따돌림 문제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전문가팀의 학교현장 투입 프로그램”, 즉 ‘마음샘’이었다.

1·2차 서류심사, 3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4차 현장실사를 거쳐 2015년 6월, 행복한청소년은 아산나눔재단의 청소년 비영리기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파트너십 온’의 1기 혁신리더 일곱 기관 중 하나로 최종 선발되었다.

자문위원으로서 혁신리더 선정과정에 참여한 박경수(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행복한청소년은 학교폭력문제에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다학제적으로 접근한다는 데 방법론적으로 혁신성이 있었다”며 “중랑구 지역에서 사업이 잘되면 이 모형을 다른 지역에 이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상상은 현실과 다르다’, 깨닫고 발로 뛴 첫해 6개월

처음으로 도전한 공모에 선정됐다는 기쁨은 잠시였다. 아산나눔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학교에 마음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됐으니, 학교에선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는 예상은 빠르게 빛나갔다. 북부교육지원청에 행복한청소년에 대한 공문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교사들의 메일함은 늘 공문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생경한 비영리기관에 관한 공문에 선뜻 관심을 주는 교사는 없었다. 첫해 6개월 동안 6개교에서 마음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성과목표를 이루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학교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갔다. 그러나

이내 벽에 부딪혔다. 문현주 실장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한다.

“학교로 전화를 하면 그냥 끊거나, 잡상인 취급을 했어요. 학생부장에게 연결해주면, 그건 친절한 축에 속했어요.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직접 발로 뛴 수밖에요. 학교로 찾아가 교무부장이나 보건교사, 교육복지교사 등 만나게 된 사람에게 행복한청소년의 ‘마음쌤 프로그램’을 열심히 알렸죠.”

행복한청소년의 이정국 이사장에 따르면, 아산나눔재단 측에선 사업 시작 단계부터 매달 한 번씩 하는 자문회의에서 줄곧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맡기지 않을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총 열 몇 시간을 학교 수업에서 빼줘야 하는데, 그게 학교구조상 어려울 수 있어요.”

당시엔 아산나눔재단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은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다. 겪어보니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심지어 돈까지 있어도 절로 되는 게 아니었다. 1년 차는 깨닫고, 발로 뛰는 해였다. 열심히 뛰었기에, 6개교에서 마음쌤 프로그램 수행하는 첫해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였다. 마음쌤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의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아이도 교사도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교실’

2015년에 마음쌤 프로그램을 접한 학교에서 이듬해에 전화가 왔다. 2016년에도 학교에 오셔서 마음쌤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많은 학교가 그랬다. 학급공동체 형성을 통한 집단 따돌림 학급치유 프로그램인 ‘마음쌤’을 접하기 전엔 의구심을 품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엔 그 효과를 인정했다. J학교도 그중 하나였다.

“새 학기에 3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을 통솔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표정이 없었고, 무관심, 무반응으로 일관했어요. 마치 무채색의 교실 같았죠. 돌출행동을 하는 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따돌리는 일도 벌어졌죠. 너무 힘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명예퇴직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교직경력 33년의 이은성 교사는 ‘지푸라기라도 잡자’라는 심정으로 마음샘을 선택했다. 의사, 심리치료사, 예술(미술·연극·음악)치료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마음샘 팀은 약 12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3학년 학급으로 찾아갔다.

마음샘 팀은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가능한 한 쓰지 않고, “우리 반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도와주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마음샘이 다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과 다른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것이 몸에 별 때까지 실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아이들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학급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칭찬하는 법,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법,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법을 매주 차례로 배워나갔다.

아이들 중 예닐곱 명은 ‘행복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괴롭히는 아이와 괴롭힘을 받는 아이, 또는 따돌리는 아이와 따돌림을 받는 아이를 보면서 방관했던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방어자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그동안 돕고 싶었지만, 외려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까 방관했던 아이들이 서로 힘을 합쳐 중재역할을 톡톡히 해나갔다. 자신들의 그 행동이 학급 모두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란 걸 알게 된 것이다.

임상심리 전문가인 문현주 실장은 “학급의 문제가 해결되는 10~11회차 수업이 마음샘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한다. 바로 사과와 용서의 시간이다. 이때 아이들은 친구든 반 전체든 선생님이든 자신이 사과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과의 말을 전할 수 있다. 문 실장에 따르면, 이때 문제아로 여겨지던 아이와 담임교사가 부둥켜안고 우는 경우도 있다.

마음쌤 프로그램 성패의 가장 큰 변인은 교사의 협조 여부다. J학교의 3학년 교실은 이은성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이들의 따돌림 행동과 방관자적인 태도가 크게 줄었고, 공동체 의식은 향상됐다. 즉, 아이들이 서로 돕고 어울리는 건강한 학급이 된 것이다.

이은성 교사는 자신이 마음쌤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제는 학교에 오는 게 행복해졌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웃게 돼요. 명예퇴직을 고려했었는데, 아직 10년은 더 할 수 있겠어요.”

마음쌤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다

마음쌤 프로그램은 2년차부터 매년 업그레이드됐다. 전문가의 검증 없이 치료자들의 경험만을 토대로 한 초기 매뉴얼은 2년차부터 정신과전문의 및 아동상담심리전문가, 치료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교장, 담임 등 학교실무자들의 조언, 서울교대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갔다. 사업 3년차가 끝날 때쯤 매뉴얼은 완성됐다. 최종 매뉴얼엔 저학년과 고학년의 활동내용이 달라졌고, 치료사와 담임과의 고정적인 면담이 3회 추가되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기 눈높이에 맞는 활동으로 마음쌤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고, 마음쌤 프로그램 성패의 가장 큰 변인인 교사의 협조는 수월해졌다. 매뉴얼 제작은 마음쌤 프로그램의 효과를 한층 높이기 위한 실무자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행복한청소년은 사업 1년 차에 6개교, 2년 차에 13개교, 3년 차에 16개교에서 마음쌤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해마다 참여 학교 수가 늘어감에 따라 학교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지만, 사업 2년차가 되면서부터 줄곧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다.

‘아산나눔재단의 3년 지원이 끝나면 과연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한청소년은 아산나눔재단과 한 달에 한 번, 자문회의를 통해 출구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해나갔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행복한청소년 혼자 아닌 지역 내 네트워킹을 통한 민-관 협력 형태로 하도록 하고, 재정적 자립을 위해 모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네트워킹 구축을 해나가면서 행복한청소년은 ‘중랑마을넷’이라는 중랑구의 네트워크 조직을 알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시의 다른 구보다 마을넷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행복한청소년은 일단 중랑마을넷의 구성원이 되어 마을넷 행사에 주기적으로 참가해 행복한청소년의 존재를 알리고, ‘마을과 학교’ 분과에도 꾸준히 참석하면서 마음쌈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나갔다. 그러한 시간이 쌓여가자 자연스럽게 지역 내 학교장 및 학교관계자들과의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행복한청소년은 학교장들의 교육지원청 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석, 마음쌈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공감한 학교장 소속 학교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마음쌈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으며, 그중 묵2동과 중랑구 내의 2개 초등학교와는 탄탄한 신뢰구축이 이루어졌다.

한편 모금의 경우, 비영리단체 컨설팅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공공예산 확보, 대기업의 사회공헌 공모사업에의 지원전략 및 지원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익혀나갔다. 그 결과, 행복한청소년은 2년차엔 동부교육지원청, 3년차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펀딩을 받아 마음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스스로 행복을 지킬 수 있게 된 아이들

마음쌈 사업 3년차가 마무리 되어가던 2017년 11월 11일,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중흥초등학교

운동장에 행복지킴이 선언이 크게 울려 퍼졌다.

“다 같이 하나, 나는 교우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돕는다. 다 같이 둘, 나는 나쁜 언행을 쓰지 않는 모범을 보인다. 다 같이 셋, 나는 교실의 행복을 위해 선생님을 도와 솔선수범한다.”

행복한청소년은 사업 2년차인 2016년부터 매년 말, 건강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 행복지킴이로 활동한 학생을 격려하고, 마음쌈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복지킴이의 날을 지정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현주 실장에 따르면, 행복지킴이들에게 ‘행복지킴이는 영원한 행복지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사기를 북돋워주면 마음쌈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다.

2회째를 맞는 2017년 행복지킴이의 날은 중랑마을넷의 협조로 중랑구민이 함께 하는 ‘걷기 대회’라는 형태로 마련됐다. 이날 행복지킴이 학생들과 담임교사 및 지역주민 약 160여 명은 서울 중흥초등학교에 모여 그곳에서 수림대공원까지 약 2.4킬로미터 정도를 걸으면서 집단 따돌림 없는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청소년과 마음쌈 프로그램을 세상에 알렸다.

3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 흐름 속에서 행복한청소년은 많은 걸 보고 배우며, 이뤄 나갔다. 집단따돌림 학급치유 프로그램인 마음쌈을 모델화했고, 민·관·학이 함께 손잡고 학교 폭력 문제를 논하기 시작했으며, 모금하는 방법을 익히고 실제로 외부 지원금을 유치함으로써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행복한청소년의 시선은 신선했다. 행복한청소년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 모든 아이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곳을 이제는 혼자가 아닌 많은 이들이 함께 바라보고 있다.

세상을 품은 아이들

- 중범죄 청소년과 같은 '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뢰 기반의 공동체, 문화예술 몰입교육, 창업을 통한 자립프로그램 제공

설립연도 2014년

대표자 명성진 이사장

연간예산 8.5억 원

직원수 16명

주소 경기 부천시 성곡로 118-15 신남빌딩

연락처 032-672-4620

웹사이트 www.sepuma.or.kr

위기 청소년을 품는 세상을 위하여

글 임종명

‘세품아’는 문제아를 품고, 문제아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품은 아이들은 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압박이 심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김지훈(가명) 군. 3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또다시 괴로운 나날이 계속됐다. 가출하여 거리를 떠돌던 중 ‘세상을 품은 아이들’을 만났다.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하 세품아)’는 이름 그대로 아이들이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기관이다. 이곳에 머무는 아이, 즉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의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그야말로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아들이다. 지훈이도 그중 한 명이였다. 그렇다면 세품아에서 어떤 배움을 얻어 변화를 확신하게 될까?

“세상에는 나쁜 아이는 없고 아픈 아이만 있으며, 문제아는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명성진 이사장이 인천과 경기 부천지역의 비행 청소년들과 10년째 동고동락해오면서 얻은 결론이다. 이 신념 아래 세품아에 입소한 많은 비행 청소년은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힐링 여행을 다녀오며 자아를 찾았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지훈이의 마음에도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세품아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중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랩 공연을 준비하고, 수많은 연습 끝에 친구들에게 선보였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음악 활동에 큰 만족감을 느끼던 중 <고등래퍼(Mnet 고교생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실용음악과에 진학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품아에서의 생활을 통해 제 가능성을 찾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었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지훈이는 세품아에서 자라 음악 강사가 된 형들을 보면서 음악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세품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아가 문제해결자로 거듭나 세상을 바꾸기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발굴에서 자립까지...위기 청소년 통합 솔루션 ‘유스 캠퍼스’

변화를 이끄는 세품아의 방식은 무엇일까? ‘유스 캠퍼스(Youth Campus)’는 위기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는 세품아만의 통합 솔루션이다. ‘홈(Home)’-‘스쿨(School)’-‘스튜디오(Studio)’, 세 가지 하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활관과 교육장 등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운영방식까지 함께 담았다. 명성진 이사장은 2008년부터 7년간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세품아를 운영했다. 몸소 터득한 위기 청소년 치유 원리와 접근방식을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개념화했다.

먼저 ‘홈’은 비행 청소년의 생활공간과 함께 건강한 대안 가족을 이루기 위한 ‘회복적 생활 교육’이 포함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존중과 책임, 관계라는 핵심가치를 토대로 그동안 처벌과 통제의 수단으로 오해받았던 생활교육을 회복과 치유의 과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선진 생활교육 방식이다. ‘스쿨’은 아이들의 상처 치유와 재능 계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교육 공간이, ‘스튜디오’는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과 사업장 등이 그 개념에 녹아있다.

세품아는 아산나눔재단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십 온’을 통해 추상적인 솔루션이었던 ‘유스 캠퍼스’를 현실에서 하나둘 온전한 완성체로 만드는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사무실 2~4층을 리모델링하면서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다. 2층 교회는 강당을 겸한 다목적실로, 3층은 사무실로, 4층은 청소년 전용 생활관(정원 15명)으로 층별 용도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전에는 아이들의 생활공간과 사무실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고, 아이들도 활동 공간 부족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5층 옥상은 새로 임대해 밴드 합주실과 보컬 연습실을 갖춘, 녹음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구성했다.

그리하여 2016년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6호 보호처분(청소년보호시설에서 6개월 간 감호 위탁) 위탁시설로 지정돼 이전 1호 보호처분(보호자에게 6개월 간 감호위탁) 청소년 외에 추가로 재판을 통해 6호 처분을 받은 범죄 청소년을 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세품아는 이밖에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그룹홈 두 곳을 사무실 인근에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여행으로 ‘스쿨’기능 강화

입주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스쿨’ 기능도 강화했다. 베이스, 랩, 댄스, 바투카다(브라질 타악기) 등 음악 프로그램과 카포에이라(브라질 무술), 수영, 배드민턴,

헬스 등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게임기획 및 제작과 페이퍼크래프트(종이모형) 강좌와 드라마스쿨도 실시했다. 영어반, 수능반, 검정고시반도 운영했다.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세품아 '스쿨'의 한 축인 여행의 종류도 다양화했다. 2012년부터 청소년들이 입소할 때마다 실시해온 몽골 힐링캠프에 더해 그룹홈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국토 종단을 새로 했다. 원가정 회복을 위해 청소년 3명의 가족여행을 지원했고, 이후 자립 단계의 청소년 7명에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힘을 키우는 성찰 여행으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내기도 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여행은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배움과 울림을 주었다. 세품아 출신으로 현재 대학에서 아동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진기(가명)는 세품아의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다고 말했다.

“제가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앞으로 세품아에 입소하는 동생들의 진로 멘토링을 하는 멋진 형이 되고 싶어요.”

무기력한 삶을 살던 병재(가명)에게도 세품아와 선생님들은 따뜻한 부모가 되어주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피하기만 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아이로 변화했다.

2017년에는 사무실 인근에 70평 규모의 공간을 임대해 '액티비티 센터(Activity Center)'를 개소했다. 액티비티 센터에서는 카포에이라, 공동체 몸놀이, 격투기, 웨이트트레이닝 등 활동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세품아 출신인 유승호(24·가명) 생활지도 교사는 액티비티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건전한 경쟁을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액티비티 센터를 개소하면서 제 꿈이 이루어졌답니다. 실제로 한 아이가 센터에서 열심히 연습해 퍼스널 트레이너 국제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조직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연구소’도 개소했다. 연구소는 회복적 정의 모형 연구와 독일의 기숙형 시설 ‘하임(Heim)’ 연수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이 접목된 생활관 및 그룹홈 운영규정을 만들었다. 더불어 청소년 교육 콘텐츠를 정리 및 개발하고, 세품아의 사업 및 조직구성원의 성과 설정 및 측정, 조직구성원 교육안 개발 등을 실시하며 ‘유스 캠퍼스’의 복제 확산 모델 완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스튜디오’를 통한 직업훈련과 멘토링 확대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스튜디오’의 기능도 강화했다.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면서 4명의 청소년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판사, 영화감독, 음악가 등 다양한 직업의 강사를 초청해 진로 멘토링 교육도 실시했다. 부천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교육훈련을 받은 청소년 중 한 명이 사회적 기업에 취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6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세품아 출신 청소년들로 구성된 MG 밴드의 멤버 2명이 음악 소셜벤처 ‘파이브스토리’를 창업해 세품아의 제1호 사업장으로 등록한 것이다. ‘파이브스토리’라는 이름에는 세품아 5층 음악 스튜디오에서 훈련하고 동지를 틀었다는 뜻이 담겨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음악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품아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익 일부를 환원하고 있다.

‘파이브스토리’ 외에도 부천시 원종동의 분식집 ‘허기’와 몽골의 세품아 국제교류센터에서

운영하는 본죽 매장과 카페 2곳 등 모두 5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허기'에는 10명의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실시했고, 몽골에도 자립 단계의 청소년 1명이 직업 연수를 다녀왔다.

이와 더불어 세품아 출신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의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패스 메이커(Path Maker)'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워크숍을 개최하고 신규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조직의 주춧돌을 놓다

2008년 여름, 우연히 잦은 가출로 인해 '독립군'이라는 별명이 붙은 한 아이를 교회에서 재웠던 명성진 이사장. 위기 청소년들의 생활공동체, 세품아의 시작이었다. 그후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몰려들어 교회는 문제 청소년으로 복적거렸고, 명 이사장이 이들과 생활하며 상처 치유를 위해 음악 교육을 실시하고 여행을 진행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사단법인으로 인가가 났지만, 우연한 계기로 세워졌기에 세품아는 '파트너십 온'을 만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조직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세품아는 조직을 진단해 조직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회계, 홍보, 모금, 사업기획 등의 전문 인력을 새로 채용해 종전 6명이었던 직원 수가 14명으로 크게 늘었다. 회계 전산 프로그램 및 전자결재 등 스마트워크 시스템도 마련했다.

2016년에는 브랜드 컨설팅을 통해 미션과 비전을 명확히 했다. "문제아'라 낙인찍힌 아이들이 '문제해결자'가 되어 스스로 건강히 서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바꿉니다"라는 미션과 "위기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써 '유스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복제, 확산되기를 지향합니다"라는 비전을 마련했다.

이밖에 CI 작업을 통해 팔을 벌려 세상을 안고 있는 아이와 빛을 형상화한 현재의 심볼 마크를 새로 마련했다. 심볼 마크는 한 명의 위기의 아이가 세상에서 희망의 빛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훗날 세상의 빛이 된다면 이는 곧 더 많은 위기의 아이들이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임상엽 경영지원실장은 “‘파트너십 온’과 함께한 지난 3년은 세품아와 유스 캠퍼스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초석인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투트랙 출구전략 ‘도시형 네트워크 학교’와 ‘수익사업단’

‘파트너십 온’ 지원이 끝난 2018년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유스 캠퍼스’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먼저 도시형 네트워크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형 네트워크 학교는 지역의 자원, 공간과 인력을 활용해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탁 받아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이다. 학교가 설립되면 세품아의 문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그곳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유스 캠퍼스’에서 ‘스쿨’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형 네트워크 학교는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자립 프로젝트인 현재의 ‘스튜디오’가 진로 멘토링과 취업 연계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매장을 열어 수익 사업을 벌이는 수익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업 아이템으로는 현재 자동차 외장관리나 의류 매장, 몽골 특화 여행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경기도로부터 '유스 캠퍼스' 프로젝트를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지정받아 SIB(사회성과연계채권)을 통해 민간업자로부터 사업비를 투자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지정돼 계획대로 성과를 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명성진 이사장은 "유스 캠퍼스의 복제 확산 모델을 완성해 현재 30명·5개 사업장에서, 2020년 80명·10개 사업장, 2030년에는 1000명·40개 사업장으로 늘려 더 많은 문제아가 문제 해결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품아는 2017년 상반기 보호청소년 중 8명이 이탈하여 기관의 최대 장점이던 낮은 이탈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2016년 6호 처분 청소년 보호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입소한 탓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회복적 생활교육 등을 통해 2017년 하반기부터 안정을 되찾고, 현재까지 이탈 청소년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입소 청년의 이탈률과 재범률은 세품아의 존재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여서 관리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쓸 예정이다.

자문위원 이상균(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범죄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은 매우 획일화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범죄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교육과 여행을 제공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가족 대안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세품아의 차별화된 접근방식은 분명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탄해진 조직과 체계화된 사업 아래 세품아는 위기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다.

동넙지역아동센터

-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대상 확대, 연속적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아동센터 구조 변화 시도
- 졸업생, 부모, 조부모, 지역사회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선순환공동체 확립

설립연도	2002년
대표자	최성복 센터장
연간예산	4.5억 원
직원수	8명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51
연락처	031-903-2760
웹사이트	www.dongnyuck.or.kr

돌봄이 새로운 돌봄을 낳다

글 정재학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세 가지 혁신

경기도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동녘지역아동센터.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왁자지껄 아이들의 소리가 흘러나온다. 안으로 들어서니 PC 앞에 앉아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로 뭔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느라 정신없는 아이들, 만화책을 잔뜩 쌓아두고 만화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동녘지역아동센터는 1990년대 말 동네의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해서 공부방 역할을 하다가 2004년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6세에서 18세 까지를 돌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와 멀어진다. 밥 주고 공부 가르쳐주는 정도의 역할만으로는 훌쩍 커버린 중고등학생들을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녘은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청소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 때 들어온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센터에 머물러 있다. 동녘지역 아동센터가 주목받았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흔히 보기 힘든 초-중-고의 연속적 돌봄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었다.

동녘지역아동센터는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파트너십 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혁신을 시도했다. 동녘의 혁신은 공간, 콘텐츠, 사업형태의 혁신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째, 공간의 혁신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시설을 매력적인 놀이터로 만든 것, 둘째, 콘텐츠의 혁신은 거꾸로 교육으로 대표되는 콘텐츠의 제공 방식을 바꾼 것, 셋째, 사업형태의 혁신은 돌봄의 연속성과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뽀뽀하고 당당하게, 방방방 놀이터

“PC방, 노래방, 만화방 여기 다 있으니,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놀아.”

아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는 재미없는 공간이다.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지만, 심심하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다. 몸은 센터에 있지만 마음은 만화방이나 PC방, 노래방에 가 있는 아이들이 더 많다. 전국에 4,100개가 조금 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자원 부족으로 뭔가를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동녘지역아동센터는 이 공간을 아이들이 머물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놀이배움터’라는 이름으로 공간의 혁신을 시도했다.

놀이배움터는 놀이가 자연스럽게 배움으로 이어지고, 그 배움이 꿈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한

공간이다. 보육이나 교육을 떠나서 일단은 아이들이 재미를 느껴야 한다. 재미있게 즐기다보면 좋아하는 것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뽀뽀(fun-fun)PC방', '당당노래방', '낄낄만화방' 등 '방방방 놀이터'를 만들었다. PC로 게임을 하다 보면 컴퓨터에 관심이 생겨서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꿈을 꿀 수 있고, 코딩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부해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딸 수도 있을 것이다.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만화책이라도 보다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마냥 컴퓨터나 만화만 보게 하지는 않는다.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7살 때부터 언니와 함께 센터에 나오기 시작해 올해로 4년 째 다니고 있다는 서인이(가명)은 “새로 이사 온 센터가 깨끗해지고 넓어져서 좋다”며 “학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며 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이들의 눈에서 출발한 ‘꿈 키움’ 프로그램

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민수(가명)는 센터에 처음 왔을 때 말도 없고 웃기가 없어서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였다. 하지만 요즘 눈빛이 달라졌다. 원래 공부와 담을 쌓고 산다고 할 정도로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던 아이였지만,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180도 변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원두를 찾아보고 조사하면서 커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을 해서 그런지 웃음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졌다. 처음 센터에 올 때의 무기력해 보이는 표정을 이제는 찾을 수 없다. 최근에는 아이들과 보컬 밴드에서 노래를 한다고 신이 나 있다.

밥 먹이고 책 읽어주는 것만으로 돌봄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동넙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꿈 키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꿈 키움 프로젝트의 핵심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찾아보고 진로를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센터에서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교육을 찾아서 제안하고 본 강의 전 선행학습을 통해 배움을 극대화하는 '거꾸로 교실' 방식의 교육 콘텐츠이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과 심층적인 인터뷰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했기 때문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 센터 내 자치회의를 강화해서 아이들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기획하지 않고 아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다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돌봄의 연속, 선순환 공동체 만들기

엄마가 외국인인 영현이(가명)는 평소 표정이 어두운 편이었다. 가정방문을 위해 집을 찾자마자 단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 술에 취해서 상담 중에 말이 거칠어지자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다행히도 조심스럽게 상담을 이어가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상담 말미에는 아버지도 한결 누그러진 표정이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의 가정을 돌며 부모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이 끝나고 난 이후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 느껴졌다. 평소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차가운 아이들이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아무리 매력적인 공간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들이 잘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동네키에서는 입소할 때부터 부모와 함께 입소 상담을 하고 정기적으로 개별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듬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도 많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잘 성장해준 걸 보니 가슴 뭉클하고 후회스럽기도 해요.”

부모들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많은 부모들이 충분한 시간 동참하지는 못했다.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센터를 찾는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맘서포터즈 모임’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끼리 서로 이해하면서 위로 해주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임이다.

일에 쫓겨 일상에 여유가 없는 부모들을 위해 아로마 테라피, 바리스타 과정 등 배움의 시간을 만들어 저녁시간에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모임이 활성화되자 엄마들끼리 금세 친해졌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아이와 센터만 존재했지 다른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들끼리 친해지자 같이 센터에 다니는 친구의 아이들까지도 챙기게 됐다.

“엄마가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온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런 엄마 모습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울컥하는 감동을 받았다. 부모가 행복할 때 아이도 행복했다.

‘파트너십 온’을 통해서 동북지역아동센터가 새롭게 정립한 개념이 바로 ‘선순환공동체’다. 졸업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돌봄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선순환 관계망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센터가 설립된 지 16년째를 맞이하면서 초창기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다. 그 아이들이 요즘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되어 다시 센터를 찾아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가끔씩 졸업한 아이들이 음료수를 들고 인사차 센터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 청소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체계화시켰다. 덕분에 졸업한 아이들이 다시 모이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었다.

센터 내 행사를 진행할 때도 졸업생들로 구성된 청년 서포터즈들이 저마다 촬영, 영상 편집, 인터뷰 등 역할을 스스로 나눠서 행사의 중요한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다. 일을 맡기기 전에는 센터 행사에 졸업한 아이들을 부르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정확한 역할을 주자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일처럼 반응했다. 연속적 돌봄의 선순환 공동체 구현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찾기

‘파트너십 온’이 던져준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가?”, 즉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다. 센터만의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도 가졌다. CI도 새롭게 하고 미션과 비전도 만들었다.

“아이처럼 꿈꾸고 좋은 어른이 되어갑니다.”

동넙지역아동센터의 새로운 미션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돌봄의 대상인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와 교사들도 배우고 성장하면서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가치들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방향성을 가진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동넙지역아동복지센터의 최성복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머물지 않고 노인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센터처럼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복지의 개념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갈 길도 멀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심신이 불안정한 아이들에게 뭔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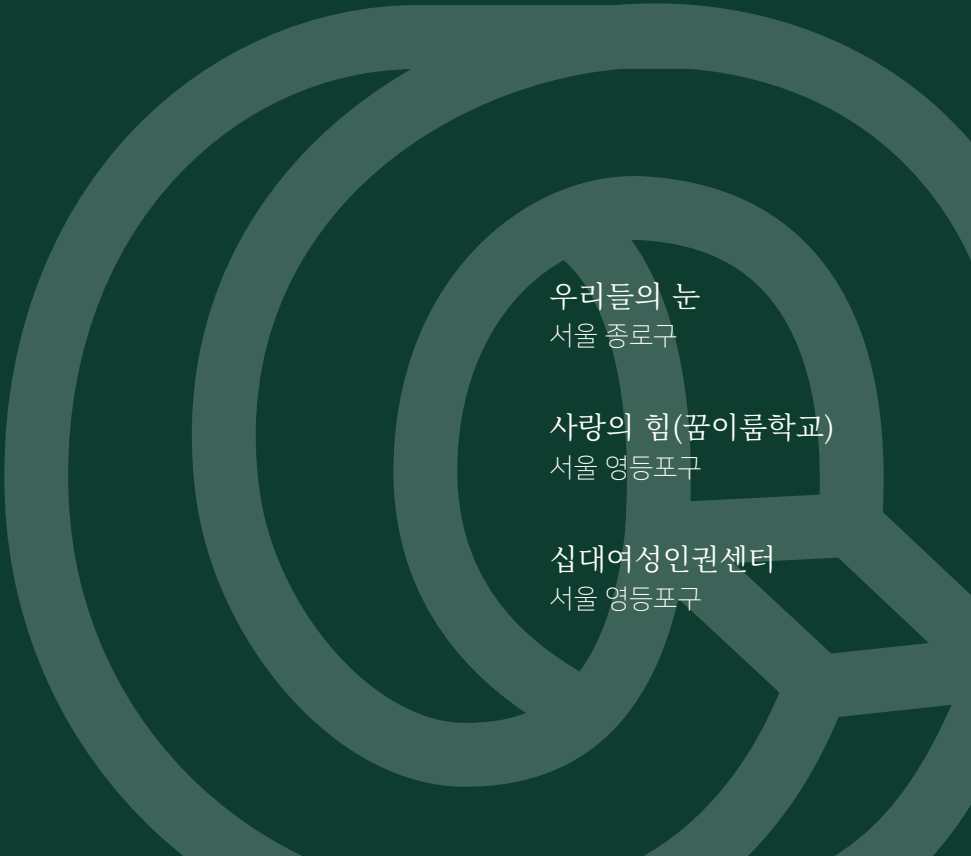
자문위원 김진우(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록 수치화되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청소년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치로 표현된 그 어떤 결과보다도 아이들의 달라진 표정이 더 압도적이다. 처음 센터에 들어올 때와 달라진 아이들의 표정은 아마 센터 내에서 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들만이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표정의 변화야말로 서류에 나타난 그 어떤 숫자보다도 더 크고 뚜렷하다.

동넙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들의 돌봄 강화,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이유 등을 주제로 매년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연합 기관도 아닌 개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무척 이례적이고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은 바람으로 마련하고 있다. 돌봄이 다시 돌봄을 낳는다는 선순환 공동체에 대한 꿈도 여전히 굴러갈 것이다.



2기



우리들의 눈
서울 종로구

사랑의 힘(꿈이룸학교)
서울 영등포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영등포구

우리들의 눈

- 시각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맹학교 미술수업 운영
- 미대 진학 지원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한정된 직업관 확장

설립연도 1996년

대표자 엄정순 디렉터

연간예산 5.5억 원

직원수 7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나길 19

연락처 02-733-1996

웹사이트 artblind.or.kr

시각장애인 미술교육 20년, 아트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글 정재학

안마나 배우지 미술은 무슨 미술

“앞도 안 보이는데 무슨 미술을 한다고 그래? 그 시간에 차라리 안마를 배우든지...”

‘우리들의 눈’ 엄정순 디렉터가 20여 년 전 지방의 한 맹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을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나온 학교 측의 반응이었다. 맹학교에도 미술수업이 있었지만, 영어 공부를 하거나 시간 때우기로 진행되던 이름뿐인 수업이었다.

‘한 학기 정도 하다가 말겠지.’

학교 측의 예상과 달리 엄 디렉터는 학교 뒷마당 컨테이너에 작업실까지 마련해놓고 3년 동안 미술 수업을 계속했다. 아이들은 미술을 좋아했다. 미술 수업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술실 앞에서 기다렸고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미술 활동에 깊이 빠졌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뛰어난 촉각 능력을 바탕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지만 큰 동물이나 높은 건물처럼 덩치 큰 사물은 손으로 만져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이 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다.

6개월간 그림 그리기에 대한 기초와 코끼리 상상하기 등의 내용으로 사전 수업을 받은 후 1주일 일정으로 태국을 방문해 코끼리를 만져보고 돌아와 코끼리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까지 열고 있다. 매년 한 차례씩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들의 눈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활동 중 하나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에게도 본다는 것에 대해 성찰하게 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다.

'우리들의 눈(Another Way of Seeing)'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미술 수업에서 출발해, 전시, 출판, 커뮤니티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개념의 아트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들의 눈은 아산나눔재단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십 온'에 참여하면서 'P에서 P까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앞의 P는 프로그램, 뒤의 P는 플랫폼이다. 지난 20년 동안 해온 시각장애인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아트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 '파트너십 온'을 통해서 미술수업의 체계화, 시각장애인 미대 진학, 시민아카데미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술 수업을 체계화하다

우리들의 눈은 시각장애인 미술 교육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맹학교, 그리고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직접 미술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각장애인 미술 교육을 직접 실행하기보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서 일선 맹학교에 미술교육을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우리들의 눈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미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술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술 교육 전문가들을 초빙해 미술 수업 운영 전반에 걸친 조언을 듣고 학생들을 지도할 미술 교육 전문가인 'TA(Teaching Artist)'를 양성, 현장에 투입했다. 미술 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별도로 구성, 미술수업 현장에서 TA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 진행하던 수업에서 벗어나 연간 강의지도안을 마련하고 수업마다 작성한 수업일지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보강했으며 수업 내용을 담은 사례집도 제작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미술교육 방식과 내용을 체계화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안을 만들었다. 우리들의 눈이 직접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맹학교의 미술 시간은 물론, 역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술을 가르치는 일반 학교의 미술 교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 교육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서 그 효과를 분석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다. 미술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 감각발달과 표현능력의 변화에 대해서 효과를 측정한 결과, 감각발달은 2.29점에서 3.05점, 표현능력에서는 2.05점에서 2.98점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을 생각하면 자유가 떠올라요. 미술을 통해서 다채로운 저를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미술수업을 받았던 한 시각장애인 학생은 수업을 받고 나서 달라진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밖에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미술 수업 시간에 만든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회를 통해 알리고 있다.

맹학교 미술교육 확대를 위해서 서울 한빛맹학교와 청주맹학교 두 곳에서 진행하던 미술수업을 전북맹아학교로도 확대해 더 많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특별한 도전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The Road not Taken'에서 따온 '가지 않은 길'은 시각장애인 학생의 미술대학 진학 프로젝트다. 장애인들이 미술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 그것도 미술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이 전문적으로 미술을 공부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변의 회의적인 시각과 맞서야 하는 일이다. 실제로 몇 년 전 미술 진학을 시도하다가 이런 장벽에 막혀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비장애 아이들도 미대 졸업하고 취직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려고요.”

“왜 아이들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어요?”

당시 주변의 비장애인 부모나 선생님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다. 마음속으로 미대 진학을 꿈꾸는 시각장애인 학생들도 이런 사회적 인식 앞에서는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다.

'가지 않은 길' 프로젝트는 전국 맹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대 진학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설명회 개최부터 쉽지 않았다. 맹학교에서 이런 설명회의 존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설명회를 통해서 맹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중 미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 8주간에

걸쳐 '오픈 칼리지(Open College)'라는 이름의 집중 워크숍을 실시했다. 미술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걸쳐 이해를 돕도록 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미술을 좋아하던 아이들이 미술이란 무엇인지, 미술대학 진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단계 워크숍을 통해 8명이 교육 받았다. 이들 가운데 고2 학생 한 명을 최종 지원자로 선정해 올가을 열리는 2019년 입시에서 수시 합격을 목표로 입시 준비 중이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재미있어요. 하지만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평등하지 않은 제도,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하죠. 나와의 싸움이자 세상을 향한 도전이에요.”

우리들의 눈과 함께 올해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충주성모학교 신현빈 학생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가지 않은 길' 프로젝트를 통해 미대입시에 직접 도전한 학생은 단 1명이지만, 성공한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클 것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 선례를 통해서 또 다른 꿈을 꾸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오픈 칼리지를 하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미술 교사가 되고 싶어요.”

“평소에 미술은 관심도 없었고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눈 선생님들이 미술은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미 오픈칼리지를 경험했던 어린 학생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 133개 미술대학 가운데 시각장애인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들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입시 전략도 세웠다. 입시 미술에서 주로 평가하는 기준은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 디자인 등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구상력을 갖고 소묘를 하는 전형보다 발상과 표현에 집중하는 전형에서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에 초점을 맞췄다.

일선 대학에서는 시각장애 학생의 진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시각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지도 경험이 없고 필요한 지원과 방법을 몰라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학들도 있었다. 이를 위한 인식 개선 작업도 꾸준히 병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

시민아카데미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시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은 물론, 미술 전공 대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점의 교육을 시도했다. 대학은 물론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리즈 강좌도 진행했다.

시각장애인들 자신도 같은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미술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시각장애인 아티스트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미술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편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이 강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고 털어놓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장애인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민아카데미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인식변화는 시각장애인 존재 자체와 미술 교육의 필요성, 두 가지 모두에서다. 접촉 범위 면에서 보면 아직 좁지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 미술 교육에 대한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 덕성여대 김진우(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각장애인 미술 교육을 체계화 하고 교안을 만드는 것은 기존 미술교육의 한계를 사회에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대진학 프로젝트의 경우도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면 사회적 반향이 매우 커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 성장을 위한 컨설팅

우리들의 눈은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다 보니 예술 분야의 탁월한 능력에 비해 조직 역량이나 사무 역량이 부족했다. 아트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다져가야 하는 시점에서 ‘파트너십 온’을 만났다.

조직 컨설팅을 통해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미션과 비전으로 구체화했다.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가진 생각들을 모두 꺼내놓고 토론을 하며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What is Seeing’이라는 미션과 ‘Art Platform of Blind & All’이라는 비전을 만들었다. 미션과 비전이 정해지자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전까지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업을 잘하고 전시를 하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그러한 활동 하나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사람들이 교류하는 아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조직이 커갈수록 사람 관리도 중요해진다. 리더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조직의 내규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직원들과 계약서를 쓰는 것 하나부터 개선해나가면서 조직의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기관장 교육과 실무자 교육으로 나눠 노무나 법률은 물론, 비영리단체로서 모금 활동에 대한 교육까지 받았다.

우리들의 눈 엄정순 디렉터는 “꼭 필요했던 여러 가지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을 시기적절하게 받았다.”며 “조직이 틀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탄탄해진 조직 아래 모금홍보 활동을 확대하여 재정 안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P에서 P까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의 힘(꿈이룸학교)

- 저소득층 학교밖청소년을 대상 뉴미디어 예술 대안학교 운영
- 뉴미디어 예술 교과 중심의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 확산

설립연도 2015년(꿈이룸학교 개교)

대표자 우소연 교장

연간예산 2.8억 원

직원수 7명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6 사랑의 힘 2층

연락처 02-2636-4442

웹사이트 dctschool.creatorlink.net

학업 중단 아이들이 꿈을 찾는 배움터, 꿈이룸학교

글 이경선

영등포에 위치한 '꿈이룸학교'를 찾아 나선 길, 6층 건물에 붙어 있는 커다란 학교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왼편에 펼쳐진 작업실에는 너른 책상과 각종 공구들이 자리해 있다. 찰흙과 목재 냄새, 여기 저기 놓여 있는 작품들이 자리에 없는 주인들의 분주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꿈' 산하의 '꿈이룸학교'는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다. 모든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기회를 얻고,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지향점 아래 문을 열었다. 총 2년 6학기의 학사과정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등 IT 기술과 공연, 시각 예술 등의 뉴미디어 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1기에 10명의 학생이, 2기에는 1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장 1명, 담임의 역할을 하는 길잡이 교사 4명, 이외 여타 캠프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2명의 직원이 함께 한다.

‘뉴미디어 예술 교육’이라는 혁신성

꿈이룸학교는 2016년 아산나눔재단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십 온’을 통해 현재의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파트너십 온’ 1기 공모에는 꽤 많은 대안학교가 지원했던 터였다. 하지만 대안학교로서는 오직 꿈이룸학교만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바로 교과과정이 지닌 차별성 때문이다.

뉴미디어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다양한 정보 전달과 소통 수단을 말한다. 차세대 IT 산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뉴미디어의 종류와 기능, 발전 방향은 무궁무진하다. 무엇보다 꿈이룸학교는 뉴미디어와 예술을 접목시킨 첫 사례로 서로 다른 두 영역의 융합을 통해 상상력과 창조성을 키워주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추구한다.

자문위원 최승희(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자체 프로그램만으로 교과과정을 온전히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학력 지향의 문제로 공교육의 교과과정을 따라가면서 다른 교과과정을 접목시켰지요. 하지만 꿈이룸학교의 경우, 뉴미디어 예술이라는 신선한 아이템으로 교과과정을 꾸렸습니다.”라며 꿈이룸학교만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로 선정된 1차연도에는 교과과정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뉴미디어 기술과 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더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만들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들의 입을 통해 듣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꿈이룸학교에서는 2015년부터 영등포 교육복지센터와 함께 교육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발굴하고 학습을 돕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곳과 연계해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구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나가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또래 청소년이 애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를 통해 공간에 올 수 있도록 워크숍, 캠프,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비롯해 3D프린팅,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 등 공연, 미술, 음악, IT, 영상 등을 접목시킨 2년 6학기의 교과과정이 완성됐다. 정두수 국장은 이 안에는 단순한 뉴미디어 예술 교육이 아닌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꿈이룸학교만의 특색이 담겨 있다며 자부심을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큰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 혹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아이들이 자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커리큘럼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본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 차례 담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전시, 공연, 유튜브 영상 등 본인의 방식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을 겪으며 아이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92%를 넘긴 학업 지속률

2차연도에는 ‘대안학교’라는 이름 아래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학교의 모습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2017년 3월 14일에 꿈이룸학교를 개교하고, 학생을 선발해 교과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교과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수업을 실시하고, 아이들의 교육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살피면서 교과과정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탄탄한 강사진도 초빙했다. 전문성을

위해 현업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래머, 미디어 아티스트, 전문 메이커 등이 함께 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아이들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중간 입학한 한 학생들까지 1기에 들어온 총 14명의 아이들 중 초기에 중도 탈락한 1명을 제외한 13명의 학생들이 1년, 2학기를 마무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13명’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숫자로 바라보면 그리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배움터에 대한 지속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지원 사업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등 일관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관심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배움터에 발을 들여놓았다가도 변경된 교육 과정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성향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 탓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가도 멈추게 된다.

2013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배움터에 대한 중단 질문에 26%, 즉 1/4이 넘는 청소년들이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학교를 한번 그만 둔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간 후의 중도 탈락률 역시 2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승희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은둔형이라거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적고요. 그런 아이들이 중도탈락 없이 하나의 집단 안에서, 일련의 수업 과정을 마치고,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라며 꿈이룸학교의 낮은 중도 탈락률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꿈이룸학교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욱 의미가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부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면서 새로 시작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꿈이룸학교는 정규 수업이 일주일에 2회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조율이 가능해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겸할 수 있다. 아이들 중에는 영화사에서 스태프로 일하거나 아이스크림 가게 점원으로 활동하는 등 관심사에 맞춰 경제 활동을 한다. 학업과 경제활동의 병행을 힘에 부쳐하면서도 아이들은 학교에 대한 만족감 덕에 기꺼이 이를 감수하고 있다.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교실

실제 아이들은 수업과 교과과정, 강사 등 꿈이룸학교 전반에 걸쳐 만족감을 표현한다. 지난 2017년 꿈이룸학교에 들어와 2기에 재학 중인 김혜진(가명) 학생은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어서 왔는데, 원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며 학교와 수업에 흡족함을 드러낸다.

“수업 방식이 다양해서 좋아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 강의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밖으로 나가 소리를 채집해 이를 영상 사운드로 사용하는 수업도 있고, 전시회를 관람하고 에세이를 쓰기도 하는 등 체험적인 수업이 많아요. 더 흥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어요.”

수업을 진행할 때도 교사의 의견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수업 후 소감을 물어보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등 요청에 따른 피드백이 나타나는 것도 아이들의 참여를 더욱 북돋는다.

“수업 후 부족한 점을 이야기 하면 바로 피드백이 와요. 예를 들어서 특강 선생님께서 작업하시는 스튜디오에 가보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을 요청했더니 바로 학교 측에서 약속을 잡고, 스튜디오 견학을 시켜주셨어요. 이런 모습은 기존의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수업 없이도 학생의 발길을 모으는 오픈 캠퍼스

사업 초기부터 열심이던 '오픈 캠퍼스(Open Campus)' 사업은 2차연도에도 지속됐다. 꿈이룸 학교가 가진 가장 큰 자원 중의 하나는 바로 공간이다. 지하의 스튜디오와 소극장을 비롯해 1층의 넓은 작업실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 스튜디오와 음악실은 주로 밴드와 랩 수업 등 동아리나 창의 워크숍을 통해 활용 중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기를 비롯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덕에 아이들은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교를 찾아 시간을 보낸다. 현재 저녁 8시까지 개방하는데, 3D 프린터나 목공 작업 등을 하고 싶거나 남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더 늦게까지 개방해 달라고 할 정도다.

지하에 있는 소극장 역시 활용도가 높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고민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하기도 하고, 스승의 날에는 학생들이 사회를 보고 교사에게 직접 만든 상과 카네이션을 주는 시상식 등 아이들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의미 있는 시간과 작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방송실, 소극장 등의 공간은 지역 사회와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이 공간을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1,2년 차에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해 스터디 모임이나 워크숍 등 교육이나 청소년과 관련한 지역 모임을 위해 공간을 개방했다. 이외에도 팟캐스트(Podcast) 녹음실 등으로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초단편 영화제를 열었으며 대안학교 연합에서 진행하는 연극 축제를 열고, 6개 학교가 참여하는 연극을 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꿈이룸학교를 알리면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3년차에는 지역 내 네트워크를 넓혀가며 연계 기관을 확보하고, 3D 프린팅 아트를 시범

적용하는 꿈이룸 캠프, IT 기술과 예술의 융합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밴드, 댄스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이곳을 홍보하며, 정기적으로 공간을 찾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있다.

공모전과 포럼을 통한 뉴미디어 예술 교육 홍보

올해는 학교를 조금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제일 먼저 청소년들이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만든 창작물이나 아이디어 작품을 공모 받아 세상에 보여주는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많은 사람이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논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시선을 바꾸기 위해 컴퓨터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작품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계획이다.

올 10월 말에는 뉴미디어-예술교육 포럼(New Media Art Education Summit)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뉴미디어 예술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한지를 알리는 행사다. 여기에서는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해 아이들이 꿈이룸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아이들이 표현하고, 만들고 싶은 대상은 어떤 것인지, 각각의 장비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올해 진행 중인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해외 대안학교와의 교류다. 10월에 영국 샌즈 스쿨(Sands School)의 학생들이 꿈이룸학교를 찾을 예정이다. 샌즈 스쿨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민주주의 학교로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 해외 연수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해외 학교와의 소통을 넘어 꿈이룸학교의 교육 과정이 보편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 아이들에게도 적절한지, 유효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 오래고, 국제적인 감각 등 글로벌한 역량이 중시

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소통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계제가 될 것이다.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안정된 시스템

독창적인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틀을 완성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제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꿈이룸학교는 처음 '파트너십 온'에 참여할 당시 막 태동한 단계로 법인 자체에 안정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의사 결정체나 결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자연히 사소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도 시일이 걸렸고, 조직 내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직원 개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분담이 확실치 않았고, 업무량은 과한 반면, 그 작업이 꿈이룸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아 필요성이 의심되는 소모적인 작업도 있었다.

이 때문에 몇 번의 진통을 겪으면서 자문위원의 조언과 조직 컨설팅을 통해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첫 단계로 조직의 방향성과 비전을 명료화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자결재시스템과 정관을 정비하는 등 의사결정과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더불어 직원들이 각자 어떤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선호하는지 살피고, 학교 내에 필요한 업무를 파악해 역할과 권한을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도 이뤄졌다.

정서적 지지와 구체적 지침으로 힘이 된 자문위원

앞서 언급했지만 꿈이룸학교는 시작단계에 있던 상태로 재정구조가 탄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3년이라는 장기 투자를 받으면서 스타트업인 꿈이룸학교에 맞춘 다양한 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기존 자료가 아니라 다양한 기관을 통해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실용적인 교과 개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전문가와 뉴미디어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탄탄한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뉴미디어 예술 수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3D 프린터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 교육도 가능했습니다.”

1차연도에 꿈이룸학교에서는 3D프린터를 이용해 조형물을 만드는 ‘상상더하기’ 등 다양한 단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교과의 필요성, 효율성,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접근법, 학교 알리기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교과과정 완비 등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자문위원의 존재도 큰 역할을 했다. 우소연 교장은 학교의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의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한다.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나 인재상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는 작업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타당성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전문가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문위원 최승희 교수는 꿈이룸학교의 정체성과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용한 평가 요소를 제시했는데, 이 역시 큰 도움이 되었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했어요.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평가 지표의 구성과 내용, 즉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는 학교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가치, 즉 학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고민이 많았는데 최승희 교수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쓰는 성장 척도와 지표를 활용해 보라고 제안해주셨습니다. 그 요소를 저희 상황에 적용시켜 ‘한 학기 동안 도달하고 싶은 목표, 관계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것, 진로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 등 저희의 목표와 방향에 맞춘 지표를 개발할 수 있었어요.”

뉴미디어 예술 교육을 확산시키고픈 목표

현재 3년차에 들어선 꿈이룸학교는 점점 체계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위원회에 들어가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외부 활동을 벌였다. 학교 차원에서는 영등포혁신 교육지구 사업에서 청소년 복지 분야에 동참하게 됐으며 서울시 대안교육 네트워크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다른 학교들과 함께 교육과정이나 공간 활용 등의 교류에 힘쓰고 있다.

우 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뉴미디어 예술 교육을 위한 단단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데 힘쓰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형태적인 목표는 오픈 캠퍼스를 활용해 다양한 뉴미디어 예술가, 다양한 연령이 만나는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것이예요. 다른 대안학교에 교육과정을 전수하고, 방법을 공유하면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치적인 목표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사회에 잘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세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뉴미디어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말을 이었다.

“저희는 10대 아이들을 단순히 가르치거나 훈련시켜야 하는 일방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또 이 세상에 확인시켜 주고 싶어요. 더불어 요즘 대화가 단절되고, 세대 간 반목이 심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디지털을 활용해서 기성세대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문화가 보편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아직은 형태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조기개입 진행

설립연도 2012년

대표자 조진경 대표

연간예산 6.8억 원

직원수 13명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9-1 은혜빌딩

연락처 02-6348-1318

웹사이트 www.10up.or.kr

성매매 없는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다

글 이경선

우리 사회는 성범죄와 관련해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원인을 찾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네티즌을 비롯해 사건을 접하는 제 3자들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 유혹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두 번째 가해를 입힌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니라 비행 청소년 등 문제 집단이나 범죄자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십대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아이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며, 인신매매나 살인사건으로 연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재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과정에서 보호처분이라는 미명하에 처벌을 받게 된다. 아이들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인다. 이런 현실 속에 한 번 성매매를 경험한 아이들은 또다시 성매매에 발을 들이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옹호 단체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문을 연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내 유일의 옹호단체다. 십대 아동·청소년들의 성매수 범죄 피해지원을 비롯해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성매매를 겪은 아이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십대 아이들이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매수 범죄 피해를 막고, 성구매자와 알선 및 조장세력을 신고하는 사이버도래상담사업을 비롯해,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S·N·S(Stop N Start)'라는 이름으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2016년 아산나눔재단 비영리기관 지원 프로그램 '파트너십 온'에 힘입어 본격화된 'S·N·S'는 성매수 범죄에 연루된 십대의 발굴은 물론 예방과 피해지원, 치유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지원시스템이다. 의료와 법률, 심리 분야의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며 쉼터 연계 등 주거지원과 학업, 일자리 연계를 담당한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성폭행, 성매수, 협박 등의 위험에 처하거나 감금 등 위기상황이 일어났을 때 구조역할도 행한다.

성매매 피해자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파트너십 온’에 지원할 당시 모든 재정이 바닥난 시점으로 사무실 운영비도, 함께 할 사람도 부족했다며 입을 열었다.

“인원이 없다보니 역할 분담이 불가능했어요. 아이들과 상담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서에 들락거리고,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다녀와 서류작업을 하는 업무를 버티다 포기하는 직원들이 생겨났죠.”

인건비 문제로 아이들을 만나고 보살필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기관의 존립 자체까지 고민하게 됐다. 그러던 중 새로운 탈출구 모색을 위해 ‘파트너십 온’에 지원했다.

“왜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하죠. 그런 인식을 개선하려고 했고, 심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부각하려 했어요. 피해자가 치료자로서 역할을 하고, 감추고 싶은 자신의 비밀이 자원이 되면서 그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심사위원들은 이 부분에 크게 주목했다. 자문위원 최승희(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 성매매를 다루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주목했던 계기는 해당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사이버또래상담원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채팅방에 들어가 접촉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었습니다.”라며 기관의 혁신성을 인정했다.

지원의 양적 질적 혜택을 넓힌 1년 차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로 선정된 이후 센터에서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바로 움직였다.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기존 사무실 위층에 공간을 마련하고, 4명의 전문 상담원을 채용했다. 상담원들에게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과 심리적 지원,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사례관리 실제 방법 등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역량 강화교육과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통합적 사례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년 차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하던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비롯한 산부인과 진료 지원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일대일 심리상담과 주거 지원을 하는 등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건수가 2015년 252건에서 2016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446건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

일명 ‘하은이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만 13세의 하은이는 7세의 지적 능력을 갖춘 아이로 가출 후 지낼 곳을 찾던 중 알게 된 6명의 남성에게 성매매 알선 및 성폭력을 당했다. 센터에서는 하은이를 정신과와 연계하고, 부모교육 및 정서 지원을 시작했다. 또한 법률지원으로 5명의 성매수자들과 1명의 성폭력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도록 돕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성매수 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대상 고소 고발도 7차례 진행했다. 성매매 알선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의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지원단 내에 공동고발을 위한 팀을 만들고, 운영 및 대응방법을 찾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하은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다. 아청법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 이슈를 만들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국제 연대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부각한 2년 차

2차연도에는 S·N·S팀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1차연도 431건이던 지원 건수는 2차연도에 922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고, 가해자 대상 고소 및 고발도 12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S·N·S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은 아이들 중 2명이 교육을 거쳐 현재 사이버또래상담원으로 활동하는 직업연계의 성과도 있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직접 오프라인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아웃리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권주리 사무국장은 한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어른이 생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자신을 반기고, 관심을 보이는 상담원들 덕분에 피해 아이들은 센터를 찾아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남자친구 이야기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공간을 편안해하고 안정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2년 차에 들어서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국제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를 극대화한 점이다. 아청법 개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하고,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에는 직접 스웨덴과 영국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연구 보고서에 반영해 아청법 개정과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 사례 조사를 해왔던 터였다. 실제 국가에서 법과 서비스를 개선할 때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직접 가보지 않고, 보고서 형식으로만 확인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스웨덴은 성매매에 대해 성구매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법령이 최초로 발의된 국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 단어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법적으로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로 명명되며 대상 아이들이 온전히 보호 체계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두 나라를 둘러보며 피해여성 보호 등 10년 넘게 법을 시행하는 과정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실무 과정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권 국장은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아청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과 아청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연수를 계기로 올 8월에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 스웨덴 외교부 반인신매매대사,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감을 넘어 서명과 후원을 이끌어낸 홍보 영상

또 하나의 큰 열매는 브랜드 컨설팅을 받으면서 다양한 채널로 조직을 알리고,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감을 얻기 어렵고 편견이 심한 이슈 탓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컨설팅을 통해 기관의 캐릭터를 제작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시도하게 됐으며, 지지와 공감을 재정이라는 현실적인 도움으로 이끄는 방법도 찾게 됐다.

특히 뉴미디어 '딤페이스(FACE)'와 함께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성매수를 제안한 가해자 인터뷰를 통해 채팅앱의 문제점과 성매수자의 현실을 보여준 영상은 250만이 넘는 조회 수와 10만이 넘는 댓글 등 뜨거운 반응을 기록하며, 광고비로 환산 시 2억 원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퍼져 나간 영상을 본 독자들은 아청법 개정 캠페인에 참여했다. 295개의 단체가 개정 운동 연대 서명에 참여해 총 서명 인원이 1만 2천 명을 넘어섰으며, 4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함께 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얻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결과 총 후원 금액 4천만 원, 후원자 수 2천 명을 넘기는 재정 지원도 이뤄냈다.

공감과 힘을 보태는 동지를 만나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것은 홍보 효과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지만 활동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더 큰 성과다.

조 대표는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뜻을 함께하는 이들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하지만 ‘파트너십 온’에 참여하면서 닷페이스 구성원, 최승희 자문위원 등 사업에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로부터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S·N·S팀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사회복지 분야에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직접 6차례 진행하는 등 상담원들의 역량 강화와 관계 마련에 힘쓰기도 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특히 S·N·S팀의 실무자들은 교육을 받는 동시에 업무를 맡다 보니 부담이 많았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실무자들의 변화와 성장이 함께 이뤄졌다. S·N·S팀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김진아(가명) 씨는 처음에는 이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무적인 성장과 함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처음엔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할지 아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교육을 받고, 아이를 만나면서부터 저만의 방식이 생기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고, 저 경우엔 다르게 다가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와준 만큼, 아이도 변화가 있길 바랐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기로 한 아이와 연락이 두절되면 크게 속상해했다. 아이와의 시간이 쌓인 지금은 아이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변화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다독인다.

아청법 개정으로 꿈꾸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

3년 차인 올해에는 S·N·S팀의 통합지원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고발 작업은 물론 애플리케이션 규제법안 통과를 위한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매매방지법상 등록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지정돼 정부지원금도 받고 있다.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센터에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아청법 개정 활동을 피해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소로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제도권 안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시스템이 안정되고, 재정적 기반 아래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성착취 없는 사회, 여성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도달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조진경 대표는 조직이 조금씩 성장하며 지속해서 운영되길 바란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 성장기록

발행일 2018년 9월 17일

발행처 아산나눔재단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08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전화 02) 741-8220

팩스 02) 741-8230

Copyright © 2018 아산나눔재단(The Asan Nanum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본 내용은 아산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파트너십 온 사업을 통해 발행되었으며
재단 및 저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The Asan Nanum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his publication was prepared by The Asan Nanum Foundation.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san Nanum Foundation.

